20살 파라미타, 사찰연계로 포교 극대화

11월 20일 창립 20주년 기념식서 비전 발표
초교분회 100곳 확대 · 국제교류 활성화 계획



11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열린 파라미타 창립 20주년 기념식. 회장 심산 스님과 청소년 표창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996년 조계종단이 청소년포교를 위해 대중공의를 모아 출범시킨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20주년을 맞았다. 이에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중장기 전략을 통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청소년 단체로 거듭날 것을 천명했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심산, 이하 파라미타)는 11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파라미타 점핑(Paramita Jumping)'이라는 기치의 비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파라미타는 △학교분회 · 사찰연계를 통한 청소년포교 동반성장 △현재 23곳인 초교분회를 2026년까지 100곳으로 확대 △전국 교원대학에 파라미타 대학생 그룹 마련 △2017년 국제불교청소년캠프를 시작으로 국제교류 활성화 △과제완수를 통한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1위 등을 실천할 계획이다.

이날 회장 심산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1996년 종단 내외 지지로 1만 명 회원, 158곳의 학교와 사찰분회로 시작한 파라미타가 현재 552곳의 분회로 확대 · 성장했다"면서 "20년은 장기적으로 볼 때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파라미타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 궁극적으로 자신이 삶의 주인임을 인식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현재 청소년 인구가 줄어들고 입시위주 경쟁 등으로 청소년포교가 열악한 환경에 처했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는 조직 기반을 구축하고 내실을 다졌다. 앞으로 제방의 스님과 지도자들, 청소년들의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청소년단체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라미타 총재 지홍 스님(포교원장)은 "파라미타의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활동은 임직원과 지도자 모두의 공덕이라 할 수 있다"며 "여러분들의 발자취를 보고 배우는 청소년은 늘어날 것이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또한 청소년들의 가슴에 널리 퍼질 것"이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외에도 아시아불교도협회 이사장 우시오 닛슈 스님과 함종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이 파라미타의 20주년을 축하하며, 청소년들의 인성함양에 힘을 보탤 것을 다짐했다.

파라미타는 이어 각 분야별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자문위원으로는 △국제교류-선업 스님(통담선원) △명상지도-도명 스님(여여정사) △의료봉사-성낙진 동국대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심성개발-유승호 강원대 영상문화학과 교수 △청소년단체 · 시설운영-조달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청소년사경 신행-김경호 한국사경연구회 명예회장 △청소년전통등 연구-전영일 전통등연구회 명장 △신행활동-박영동 동대부초중고 수석교법사 △법인관리-이점수 법무사 등이 위촉됐다.

아울러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을 비롯한 공로자들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여하고, 지역별 지도자와 청소년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또 고은 시인이 작사한 기존 '파라미타의 노래'를 이하윤(오남고 3) 학생이 재녹음하고, 동대부여고 파라미타 학생들이 율동을 만들어 새롭게 발표했다.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2부 '행복 나눔 힐링콘서트'를 열고, 동국대부여고 댄스팀과 BBS 제7회 찬불동요제 대상 수상팀, M-Virus 재즈음악밴드 공연을 대중에게 선보였다. 행사에는 중앙임원과 지역별 임원,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한편 파라미타는 1995년 9월 불교청소년의 해 지정과 12월 한국불교청소년지도자대회에 이어 1996년 3월 창립했다. '맑은 세상을 청소년에게'라는 표어 아래 1문화재 1지킴이 · 문화재 모니터 · 우리역사 바로알기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 건강지킴이 · 국제교류 · 문화축제 · 연구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올해 복지관 빛낸 주인공 한자리에

종로노인복지관, 11월 24일 자원봉사자 · 후원자 송년모임

1년 동안 자비나눔행으로 복지관을 빛낸 주인공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이하 종로노인복지관)은 11월 24일 종로 서울극장서 '2016 자원봉사자 · 후원자 송년모임 좋은인연'을 개최했다.

이날 우수 자원봉사자 · 후원자 표창식선 △한국마사회 종로 문화공감센터(국회의원상) △현대건설, 신한은행, 한국귀금속연합회 박승관(종로구청장상) △향기소리, 조용숙(조계사주지스님상) △염불사 주지 향림 스님, 문정대(종로구의장상) △정석진, 시립대학교, 대신고등학교(종로노인종합복지관상)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1월 24일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수상자들.

박정희(54) 신한은행 여신관리부 차장은 "매주 2번 종로노인복지관서 활동한다. 어르신 뿐만 아니라 동료 봉사자들 또한 편할 수 있도록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어르신 바둑 · 장기 으뜸왕 '탄생'

11월 21일 서울시 어르신 바둑장기 대회

서울시 어르신들이 진검승부를 펼쳐 바둑 · 장기 으뜸왕을 가렸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가 주관하고 서울특별시가 서울시 시민청 태평홀서 주최한 '제2회 서울시 어르신 바둑장기 으뜸왕대회'가 11월 21일 성료했다. 이날 서울시 소재 복지관을 대표하는 128명 어르신들은 총 2시간 동안 치른 예선 3국을 거쳐 우승자를 뽑았다.

바둑부문 우승은 서종천(서울노인복지센터) 씨가 차지했다. 이어 준우승에 윤경섭(용산노인종합복지관) 씨, 3위와 4위는 각각 김병가(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 염문태(성북노인종합복지관) 씨가 올랐다.

장기부문은 서울노인복지센터가 휩쓸었다. 우승자 최화남 씨를 비롯해 신영석(준우승) · 김명춘(3위) · 송호성(4위) 모두 서울노인복지센터 바둑장기 동료다.



11월 21일 '제2회 서울시 어르신 바둑장기 으뜸왕대회' 수상자들.

한편 대회가 진행되는 태평홀 앞 로비선 서울시와 서울노인복지센터가 협력한 종묘 · 탑골공원 일대를 어르신문화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홍보부스가 열렸다.

희유 스님은 "이번 대회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행사를 즐긴 축제의 자리였다"며 "앞으로 종묘 · 탑골공원 어르신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과 노인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김흥국장학재단, 초등생 20명 등 장학금

불타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2000년 설립된 김흥국장학재단이 17년째 장학금을 지원한다.

김흥국장학재단(이사장 김흥국)은 12월 3일 서울 이태원동 북경요리점 마오서 '제17회 김흥국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을 연다. 이 자리서 초등학생 20명과 원로가수 2인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흥국장학재단은 올해까지 초등학생 179명과 원로가수 1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김흥국 이사장은 "근래 들어 장학금대상자가 2배가량 늘었다.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해오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힘을 보태주신 덕분"이라며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시간이 흘러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마음씨를 갖출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수용자 佛性의 싹 틔워주길"

조계종 교정교화전법단
11월 19일 3차 결집대회

전국 각 교도소 및 구치소를 돌며 수용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포교사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열렸다.

조계종 포교원 교정교화전법단(단장 혜원)은 11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3차 결집대회를 개최하고, 수용자들의 교화에 헌신한 모범 불자들을 표창했다.

1부 개회식서 교정교화전법단장 혜원 스님은 총무원장상을 수상했으며, 각지에서 교정포교를 펼치고 있는 최성환(밀양구치소) · 김혜은(여주교도소) · 진영순(성동구치소) 씨와 모범 교정인 차종춘(춘천교도소 교위) · 고명원(서울구치소 교사) 씨가 포교원장상을 받았다. 아울러 전법단을 후원하는 김승희 · 김성주 씨는 단장상에 선정됐다.


조계종 교정교화전법단 결집대회에 참여한 사부대중이 수용자 교정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삼귀의를 올리고 있다.

이날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치사를 통해 "스님이나 사찰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활동 중 하나가 교정교화포교다. 재소자에 대한 비호감도 작용하겠지만 물질적 지원에 비해 성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며 "재소자들이 잘못된 행동으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전법단 활동으로 그들의 양심과 지혜의 본성을 깨우쳐주기만 한다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새 출발할 수 있다.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단장 혜원 스님은 "교정교화전법단이 출범한지 만 5년 됐다. 1995년부터 교도소를 찾아다니면서 전법단 결성에 반신반의 했지만 이제는 큰 힘이 된다는 걸 많이 느낀다"면서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듯이 불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자비를 실천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단원들을 격려했다.

안성수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부회장은 "부처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교정교화전법단이 앞으로도 수용자 교화에 큰 역할을 맡아주시리라 믿는다"며 "3500여 교정인불자들이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정교화전법단은 한길 정보통신학교(제주 소년원)에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개회식 후에는 2부 정목 스님 특강과 3부 '교정교화분야 활성화 방안' 주제 워크숍 등을 진행했다. 윤호섭 기자

법우들과 스키 타며 우의 다져요"

불교스카우트, '화랑 스키캠프' 참가자 모집

조계종 포교원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이 겨울 스키캠프를 연다.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은 내년 1월 12~14일 경기도 포천 베어스타운서 '제4회 화랑 청소년 인성함양 스키캠프'를 개최한다. 1일차 입재식을 시작으로 △안전교육 및 수준 분류 △스키 및 보드 강습 △예불 △자유스키 등이 진행된다.

어린이 · 청소년법회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2월 29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희망 사찰은 이메일(bskyeo@hanmail.net) 또는 팩스(02-722-9034)로 신청서 접수 후 참가비 자부담 1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스키복 · 장갑 · 고글 · 여벌옷 등은 개인 지참하고, 현장 대여 시 별도 부담해야 한다.

연맹 측은 "어린이 · 청소년들이 흰 눈과 별빛의 어우러짐 속에서 정서를 순화하고, 스키를 통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자리"라며 "특히 청소년 인성개발과 사찰 법우들 간 우의를 다져 청소년 포교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연인원 7만명이 관람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선무도 공연과 함께하는 골굴사 성지순례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변성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 공 연 내 용 :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 선무도 지도자 과정 신입생 모집 : 2년 전액 무료 (홈페이지 참조)
◈ 선무도 공연 ◈
오후 3시 30분 (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 선무도 수련원 ◈
· 서울본원(종로) 02)763-2980
· 서울 강남지원 02)599-5554
· 부 산 본 원 010-2554-8100
· 울 산 지 원 052)276-6271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청소년 심신수양을 위한 템플스테이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겨울캠프
원효스님의 열반 성지! 신라 화랑들의 기상이 담긴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을 위한 제50회 화랑수련회 겨울캠프를 개최합니다. 21세기 새로운 리더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신화랑 캠프! 자연속에서 공동체 수행생활을 체험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청소년 화랑수련회와 함께 하세요.
언 제 2016년 12월 25일 ~ 2017년 1월 14일
모집인원 60명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5시까지 입교. 토요일 12시 퇴교
대 상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평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운영)
준비물 세면도구, 수건, 필기도구, 운동복, 운동화, 방한모, 방한장갑, 목도리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수련회비 1주 - 35만원 / 2주 - 70만원 / 3주 - 9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예약·문의 054-775-1689 / 744-1689
www.sunmudo.com
♣ 수료식은 골굴사 선무도 대학에서 토요일 11시에 진행합니다.
※ 기본 프로그램 :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민요, 불교강의, 108배
※ 영 어 캠 프 : 선무도를 수행하는 원어민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영어캠프
※ 부모님께 효도마사지 실습 및 예절교육
※ 매주 색다른 경주문화유산 탐방 : 감은사지, 문무대왕릉, 기림사, 경주국립박물관
양남 주상절리길 및 감포깍지길 탐방
※ 자 아 성 찰 : 자비관 명상, 자자회, 자기바라보기
1500년 전통사찰 · 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11교구 골굴사 · 선무도 화랑학교